

- ①부실시공 지적 재시공 요구 외면
- ②남구청 1년전 결함기 안전점검
- ③작년 여름 배수관 고장 이상징후

새벽 '날벼락 人災'...3차례 예방 기회 날렸다

광주 봉선동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은

20년동안 단 한차례도 전문가 진단 없어 "황" 핑음 속 와르르 "지진난 줄 알았다"

광주시 남구 대화아파트 뒤 소방도로 옹벽 붕괴사고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로 굳어지고 있다.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진 위기 징후를 꼼꼼하게 챙기고 원칙대로 따랐다면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기반 채 생활하는 '일상 속 안전 불감증'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남구는 매년 점검을 하면서도 안일하고 무심하게 대처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과거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재시공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옹벽 부실 '징후'도 있었지만 관찮겠지 하는 안일함에 20년간 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난 날벼락=5일 새벽 3시 30분께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소방도로 뒤편 높이 20m, 길이 188m 옹벽 중 30m가 붕괴되면서 아파트 쪽으로 밀어닥쳤다.

제석산을 떠받치며 설치된 옹벽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와 토사 등 1000t이 폭 10m짜리 소방도로를 넘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49대를 덮쳤다.

새벽 시간에 발생,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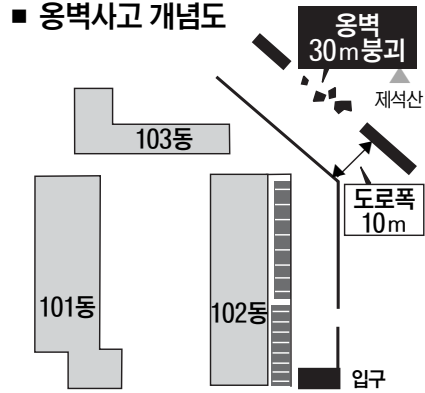
아파트 주민 등 305세대는 즉시 모를 2차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인근 경로당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으며 옹벽과 인접해있는 102·103동 164세대 주민들은 주일중학교에 마련된 임시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 주변 출입을 통제한 상태다.

◇사고 원인은...부실시공에 관리 부실까지=소방 당국 등은 옹벽 붕괴 사고가 옹벽 자체의 구조적 결함(부실시공)과 관리(점검)부실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원인 분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빙기를 맞아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고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약해져있던 옹벽이 끝내 무너져내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영호 남구청장도 "설계 과정에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실 시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 옹벽사고 개념도

■ 옹벽사고 개요	
사고장소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
사고일시	5일 새벽 3시 30분
옹벽소유자	광주 남구청
옹벽관리자	광주 남구청
옹벽건설사	대화주택건설
세대수	3개동·315세대
옹벽형태	길이 188m·높이 20m 철근 콘크리트 구조

20m에 이르는 옹벽 높이를 감안한다면 흙겹으로 시공될 게 아니라 2중 이상으로 옹벽이 건설되어야 하고 두께도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최정장은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니 해당 옹벽이 지금 지어졌다면 아마 건축법규를 통과하지 못해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남구의 부실한 점검도 지적되고 있다. 남구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10m 떨어진 지점에 제석산을 깎아 수직으로 건설된 옹벽에 대해 20년 남도록 단 한차례의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지난해 옹벽 위로 물이 흘러 넘친다는 주민 민원에도 전문가를 통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징후만 무시하지 않았어도=안전진단 전문가들은 옹벽 붕괴사고는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지적했다. 남구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옹벽을 철저하게 점검해왔



5일 오전 붕괴 현상이 발생한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편 제석산 옹벽 앞 전신주가 매몰될 경우 봉선동 일대가 정전될 것을 감안해 소방당국과 한전 측이 예비선로를 설치하기 위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남구는 해당 옹벽을 '위험성은 없으나 관리가 필요하다'며 B등급으로 분류해왔다. 이 때문에 육안 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치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여름 배수관 고장으로 물이 옹벽 위로 넘치는 등 경고성 징후가 나타나 점검을 요청했지만 구청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화아파트 안전 진단에 참여한 관계자는 "배수가 되지 않고 옹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은 옹벽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로 붕괴를 예고하는 사전 징후의 하나"라며 "지난 여름 주민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 전문가와 정밀점검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실 시공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재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광주지부장은 "1995년 대화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번에 무너진 옹벽이 부실시공됐으며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지만 얼마 안 돼 시공사와 재시공 없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르포-광주 급경사지 옹벽 둘러보니

옹벽 곳곳 금가고 배수관은 꽉 막히고 축대-아파트간 4m도 안돼 '아슬아슬'

광주시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 제석산 축대(옹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둘러본 남구지역 급경사지는 아슬아슬한 곳이 적지 않았다. 지역민들은 '위험성이 없다'고 분류된 대화아파트 인근 축대가 붕괴된 점을 내세우며 '경사면이 극히 불안하고 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D등급 지역을 비롯, 모든 대상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현대 1차 아파트 뒤쪽에서 야산을 떠받치고 있는 축대(높이 8m×길이 200m)는 남구가 지정한 급경사지 중 'D등급'으로, 지난해 축대 보수공사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축대와 아파트간 거리가 4m도 못돼 아슬아슬하게 보였다.

해당 지역은 토지 이용 극대화를 위해 높은 산을 깎은 뒤 15층 높이의 절개지에 옹벽을 쌓으면서도 안전 거리를 지킬 여유 토지가 없어 자칫 토사와 돌더미가 쏟아져 내릴 경우를 대비한 방치시설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에 위치한 남구 서동 제일파크맨션 인근 축대도 비슷한 형편이다. 지난해 D등급으로 신규 지정된 뒤 옹벽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길이 50m의 추가 옹벽 설치 계획을 마련했지만 예산이 없어 별다른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셈이다.

동구 학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옹벽(C등급·높이 8~12m×길이 250m)의 경우 배수관(지름 7cm)이 시멘트로 막혀 있어 물 빠짐 기능이 불가능했고 축대 위



금이 간 옹벽 바닥면



시멘트로 막힌 배수관

두께 25cm의 벽면에는 균열(8cm가량)도 눈에 띄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급경사지는 121곳으로,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 점검이 필요한 C등급 40곳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위험성이 없다는 B등급 급경사지인 대화아파트 인근 축대가 붕괴되면서 같은 수준의 77곳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병설유치원 교사가 수개월간 다문화가정 아동 학대"

완도서...학부모들 교체 요구

완도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50대 교사가 수개월동안 다문화가정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대를 당한 아동의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5일 완도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완도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A교사(여·52)가 지난해 6월 식당에서 B5(군 등 2명)이 밥을 먹을 때 흘린다며 수심분 동안 손을 들고서 있게 하고 폭행했다.

또 지난해 8월 C5(군)의 등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명자국이 발견돼 학부모가 항의

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B군 등의 학부모는 A교사의 폭행과 학대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완도교육지원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완도교육지원청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성실과 복종 의무 불이행' 규정으로 견책 처분했다.

학부모들은 A교사가 징계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근무를 계속함에 따라 등원을 거부하며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언젠가 터질 줄 알아...인명피해 없어 다행"

주민 반응

"허술하게 시공된 옹벽이 언젠가 이렇게 터질 줄 알았어요. 언제 피해를 보상받고 집에 돌아갈 수 있으려나..."

옹벽 붕괴 사고가 난 남구 대화아파트 주민들은 언젠가 터질 일이 터졌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새벽 아파트 현장에서 만난 주민 정모(여·46)씨는 "지난해 여름 빗물을 배출해야 할 배수관이 부식돼 제석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옹벽을 타고 쏟아져 내려 구덩이 민원을 넣었다"며 "당시 구청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했어야 했는데 어

태 정밀진단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운이 좋아 산게 아니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여·52)씨는 "지난해 3월께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을 하면서 소방도로 옆 옹벽에 대한 점검은 잘 이뤄지는지 구청에 문의전화를 한 적도 있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까지 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옹벽 밑은 평소 차량 수습여대가 주차하는 곳인데 사람이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언제 피해가 복구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보상은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건설사에 법적책임 묻기 어려워 남구 곤혹

피해 보상 어떻게

붕괴된 대화아파트 뒤 제석산 축대(옹벽) 소유주는 남구로, 부실하고 미흡한 관리·점검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너진 축대는 '소로 1류 155호선'이라는 명칭으로 폭 10m짜리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에 포함돼 있다.

아파트 건설사가 도로를 건설하면서 함께 옹벽을 쌓아올려 남구에 기부채납한 지 20년이 지난 탓에 옹벽 자체가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 등 일반적 시각이다.

소유주이면서 관리 주체인 남구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일어난 사고로 판단할 경우 일정부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했다가 매몰 피해 등을 입은 차량의 경우 책임 범위를 놓고 양측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인 진단과 복구가 늦어지면 임시 시설로 대피한 입주주민의 거주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피해 보상 문제도 남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차량 피해자들은 우선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고 보험사는 남구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착하고 정직한 빅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빅거리 X 파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기자

http://tv.chanela.com/culture/2015/02/2020_3333-4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광양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구례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강진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